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9월 22일(금)
(음력 8월 3일)

Пятница
22 сентября 2017 г.
№ 37(11675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7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제2회 사할린아리랑제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기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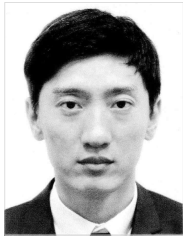
Дорогие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ердечно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жителей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округа № 4, отдавших голоса по партийным спискам за КПРФ и меня, как кандидата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пасибо за доверие, готова работать в ваших интересах и интересах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ветлана Иванов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дьмого созыва

Уважаемые избиратели!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решил поддержать меня на выборах в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дьмого созыва. Постараюсь оправдать ваше доверие, буду стараться защищать ваши интересы.

Юрий Цой,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дьмого созыва

존경하는 여러분!

제7기 사할린주두마 의원선거에서 저를 뽑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7기 사할린주두마 의원 최 유리

제7기 사할린주두마 최종 명단 발표

지난 20일(수) 사할린주선거위원회 회의에서 제7기 사할린주두마 의원 비례투표 최종 의원 명단이 발표되었다.

단일 선거구로 14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사할린주두마 의원으로는 <예지나야 러시아>(통합당)정당에서는 9명: 타치아나 박, 위탈리 고밀렙스키, 아르쉴 크루글리크, 이고리 안추크,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아나톨리 코츠네브, 안드레이 폴라코브, 나탈리아 자하르추크와 유리 아르하로브.

러시아연방 공산당에서는 3명: 유리 위골로브, 나탈리아 즈다카예와, 이리나 니키피나.

자유민주당에서는 2명: 드미트리 플레예트와 위탈리 바라노브.

주두마에 총 28명(1석 선거구 의원 명단/14명 본지 지난 호 게재)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 12명만이 의원으로 월급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 주두마 의원 월 평균 임금은 20-30만 루블리 알려졌다.

9월 25일에 소집될 제7기 주두마 의원회의에서는 신입의원들에게 의원증서를 수여하고 의장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의장으로는 안드레이 하포츠킨, 부의장으로는 알렉산드르 이와쇼브(전 아니와 시장)가 선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사기자)

사할린주, 태풍 피해 복구 작업으로 70여 동 주택 지붕 수리

일본에 대규모 피해를 입힌 태풍 '탈립'은 지난 18일 사할린지역을 통과하면서 최대풍속 초속 40m의 강풍(쿠릴열도)과 큰 비를 가져왔다. 유즈노쿠릴스크, 아니와, 홀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전선이 파손되어 정전이 되었고, 아파트들의 지붕이 파손되었으며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가고, 약천후로 공항이 폐쇄되고 연락선이 끊겼다.

지난 19일 사할린주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은 지방 지도자들과 회의에서 '탈립' 태풍으로 인한 피해 문제를 심의한 가운데 사할린주에 70여 동의 주택 지붕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유즈노쿠릴스크와 마카로브구역 워스토조노예 마을 중학교의 지붕과 외관이 파손돼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전화로 신고하도록 했다. 사할린주택공공경리 등 업체들은 태풍 후 정비 및 보수 작업에 즉시 나섰고 주중앙도시와 코르사코브에도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지붕들의 복구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신

사할린 및 쿠릴, 연어·송어·키주츠
4만5000톤 어획

9월 19일 사할린주에서 연어·송어·키주츠 어획량은 45 393,68톤이었다. 그중 2만7000여 톤은 송어다. 송어는 현재도 쿠릴 중간 수역에서 잘 잡히고 있다. 이투루프 기업체들은 원활한 작업 속도로 송어 어획량은 1만5천 톤에 달했다.

사할린과 쿠릴에서 연어의 어획량은 17 570,73 톤인데 그중 5320톤은 오히려 업체들이 어획했다. 키주츠 어획량은 504톤으로 그중 21톤을 동사할린 수역에서 어획했다. 북쿠릴의 네르카 성어기는 끝났다.

한국기업, 사할린에 투자 증대 준비

얼마 전 사할린을 다녀간 경기도 강덕구 연정부지사와 광주시 최억동 시장은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와 만나 경제 및 인도적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사할린주지사는 양지역 간 경제무역협력은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향상된 협력구도의 전망이 보인다고 특히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할린관을 방문하여 한러 간 관광,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면담에 참석한 한국기업인들은 사할린에 투자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도로건설, 선박 제조, 수리, 의료시설 재건 등에 투자협력의 의향을 표명했다.

코르사코브 시장 권한 대행으로 썬무르 마긴스키 부임

9월 초에 알렉산드르 루다코브 코르사코브 전 시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관계로 지난 20일부터 코르사코브시 시장 권한대행에 마긴스키 썬무르가 대리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는 부시장으로 활동하며 시경리국 사업을 담당해 왔다. 코르사코브 지방자치체 정관에 따라 코르사코브 시장 선발은 쿵쿠르를 통해 코르사코브 시의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12회 사할린주 장애인스파르타키아다 개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2회 사할린주 장애인 스파르타키아다가 개최된다. 이 스포츠대회에는 12개 지방자치체 단계의 우승자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대회 참가자들은 4가지 부문(근골격계 장애인,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에서 승부를 다투게 된다. 경기 프로그램에는 사호마트, 보체, 다트, 육상 경기, 탁구와 전자총 사격이다. 시상식은 9월 22일 14시에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11살에 아버지와 생이별, 28살에는 남편을 잃은 김종희 할머니의 인생이야기

2017년 9월 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 초대하신 사할린동포 중 한 분은 마카로브시에 거주하는 김종희 할머니였다. 김 할머니는 이날 문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인사도 나눌 수 있었다. 김종희 할머니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꿈같은, 실감이 나지 않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필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떠나기 직전에 김 할머니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다.

김 할머니는 1933년에 한국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899년생인 김 할머니의 부친은 1938년에 우글레고르스크구역 보쉬냐코워 탄광에 모집되었다고 한다. 1940년에는 온 식구(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가 사할린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그러나 보쉬냐코워 탄광에서 일해온 아버지와 오빠들(1924, 1927년생)은 그것도 모자라 1944년에 이중징용을 당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일본 규슈로 보내졌는데 일본에 간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 당시 사할린에 남은 식구는 어머니와 동생3명, 총 5명이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어머니는 뱃속에 막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1945년에 태어난 막내는 아버지를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게 되었다. 식구가 많아 가장과 큰 아들들이 집에 없어서 김 할머니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외로우셨을지 상상만으로도 짐작이 되었다. 아버지와 오빠랑 작별인사를 할 때 김 할머니는 생이별 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는 사할린에 둔 식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친척방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1년에 어머니는 한국을 방문해서야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1960년에 세상을 뜨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고모댁에서 지내셨고 오빠들도 따로따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큰 오빠는 가족을 두고 따로 지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던 둘째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오빠를 북한사람들이 데려갔다고 했다.

"고모는 작은 오빠가 죽은 걸로 간주해버렸어요."라며 김 할머니는 긴 숨을 쉬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오빠는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오빠가 한국에 나와있을 때 두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어머니도 딸 아들과 한국에서 만났었다. 그후 큰 오빠는 90세의 나이로 2014년에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이야기를 마쳤다.

할머니와 필자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 회장은 "할머니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다."면서 김 할머니 취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44년에 아버지와 오빠들이 이중징용당한 이후 더욱더 엄마를 도와야 하는 11세의 김종희 할머니는 두말없이 가정에서 만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다고 한다.

1945년에 처음 조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김 할머니는 교육에 관심이 꽤 많았었지만 학교는 2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다고 한다.



게서 얻어 맞으면서도 반박했지만 '너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반대를 못했다며 회상했다.

김 할머니는 신랑이 잘 생기고 인물도 좋았다고 한다. 전화 기술자로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일했었다고 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세월은 고작 15년이었다. 그간 아이 넷(아들 둘, 딸 둘)을 낳았다고 한다. 청년시절에 축구를 즐겼던 남편은 한번은 공으로 세계 가슴에 맞은 후 나중에 폐에 문제가 생겨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 아내의 곁을 떠났다고 했다.

그 당시 할머니 나이는 28세, 남편 나이는 37세였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너무 캄캄했다고 했다. 남편하고 그는 잘 살았지만 시집살이 하느라 엄청 고생했다고 한다. 마카로브의 이웃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남편을 보내고 나서는 별별 떨면서 살았다고 했다. 손자의 기저귀를 한번도 갈아입히지 않는 시어머니였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아이 넷과 함께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마카로브 제지공장에서 포장작업을 하게 된 김 할머니는 낮, 저녁, 또는 밤 교대로 일했다고 한다. 식구는 그 당시 일

1947년에 겨우 14살 될 무렵에 마카로브에 사는 총각 집에 시집간 김 할머니는 처음엔 결혼을 절대 안 하려 하며 어머니에

본 바라크(나무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어느 날 일본 바라크 동네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밤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쫓아간 김 할머니는 다행히 불이 집까지는 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큰 아들은 동생들을 밖으로 나가 피하도록 했다고 했다. 엄마로서의 마음은 고생투성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지도부를 찾아 낮에만 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을 바로 찾지 못하다가 마침 온실에 채소, 꽃을 재배하는 근로자가 필요해 그쪽으로 취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장 좋고 기쁜 때가 언제 였나?"는 필자의 질문에 김 할머니는 "딸이 취직했을 때, 아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라고 답했다. 자식 넷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만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행복으로 느껴졌을까?

사실 쫓아다니며 재혼하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 할머니는 아이들만 보고 살기로 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부지런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은 지금도 어머니의 말씀은 법이라 여긴다고 했다. 막아들도 2년 후면 70세이고 막내딸도 60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말수가 적고 어르신답게 행동하는 김종희 할머니는 아이들, 동무들, 그리고 마카로브 시민들에게도 존경 받는 인물이 다.

올해 만으로 84세의 연세에도 김 할머니는 맨날 바쁘단다. 일찍 일어나 집안 일을 한 다음 그는 도시 한 바퀴를 돌고 산책한다고 한다. 혼자 살고 있지만 같은 주택에 사는 둘째 아들이 매일 엄마의 안부를 물으러 다닌다고 한다. 텃밭이 있어서 여름에는 상추 등 채소를 심어놓고 친척, 이웃집, 동무들에게 나누기도 한다고 했다. 또 크로세 뜨개질을 잘 하는 할머니는 수 많은 식탁보도 손수 만들었다. 가끔 한인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면 꼭 참석한다고 한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안 갈 수 없다."고 김 할머니는 설명한다.

현재 자녀들과 손자녀, 그리고 증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김종희 어르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모국의 관심을 배려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쿠나쉬르에서 만화영화제 주인공들과 만남 진행

일본 무비자 대표방문단은 쿠나쉬르에서 특수 인물 강조법의 특색을 지닌 일본 만화영화의 팬들을 위해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이 지역문화회관에서는 제3회 국제 만화영화제 주인공들과 만남 및 오타쿠문화(일본어로 '오타쿠'는 뭔가에 깊이 빠진 사람, 만화영화에 깊은 애정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다.)가 진행되었다. 첫 만남은 일본과 러시아 정부 지원 속에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두 번째는 고베 가쿠인대학(효고현 고베시)에서 개최되었다.

축제는 삽화 화가, 일본 코믹 만화가, 유리 타카기 연출화가의 보조자인 토미자와 키라라 사진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도) 자주 방문했었다. 유즈노쿠릴스크에서 그는 일본 만화영화식 티비카라와 유루카라(일본 만화영화의 화법)에 따른 활동교실을 진행했다.

활동교실을 마무리하며 일본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화회관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이어 만화캐릭터들의 의상분장 연출 쿡쿠르가 있었다. 만화주인공들과의 만남 조직위원들은 만화영화와 컴퓨터 게임에서 잘 알려진 주인공들의 의상을 가져와 이를 유즈노쿠릴스크 어린이들에게와 일본 대표단 중 몇몇에게 갈아입혀 분장을 연출했다. 관객들의 가

장 큰 박수를 받은 주인공이 쿡쿠르의 우승자로 선정되었다. 최우등상은 <도쿄의 전설> 판타지 만화,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분장한 섬주민에게 내려졌다.

일본 방문단은 유즈노쿠릴스크 주민들을 위해 유명 일본 만화영화의 노래와 러시아 노래를 불러 조출한 공연도 펼쳐보였다.

На Кунашире провели аниме-самми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езвизовой япо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привезли на Кунашир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аниме, японских анимационных фильмов, отличающихся особой манерой прорисовки персонажей. В район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прошел трет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ммит аниме и отаку-культуры (отаку в Японии называют людей, увлеченных чем-либо, а за пределами Японии термин применяют к тем, кто является большим любителем аниме). Первый саммит прошел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 Японии и России, второй —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Кобе Гакуин (расположен в Коб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префектуры Хиого).

Главным действующим лиц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иллюстратор, художник манги (японских комиксов), ассистент художника-постановщика Юри Такаги, фотомодель Кирара Томидзава, частый гость в России (бывала в Москве, на Сахалине).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она провела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тибби-кяра и юру-кяр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стилям японской анимации).

По окончании мастер-класса для японских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поселка прошел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Дома 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й продолжился конкурсом косплея. Организаторы саммита привезли с собой кос-

тумы известных персонажей аниме-сериалов и компьютерных игр, в них переоделись юные жители Южно-Курильска и не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япо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Победителя конкурса должны были определить зрители — чей персонаж вызвал самые громкие аплодисменты, тот и победил. Главный приз достался жителю острова, который нарядился в главного героя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манги и сериала "Токийский гуль".

Гости из Японии также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южнокурильчан не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на котором звучали песни из популярных японских анимационных фильмов, а также русские песн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특수아동들 과일부케 만들기

주중앙도시에서 발달장애아들과 부모들을 위한 '과일로 조립하기' 활동교실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열린 마음>클럽의 협력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35가정 중 발달장애아 40명이 참가했다. 이벤트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광대와 교체의 시간을 가지고 발달장애아와 신체장애아들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 행사장을 무료로 제공한 <게네랄> 종합행사장에서 산책하기도 했다.

활동교실의 목적은 아이들의 창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활동으로는 포장지로 감싼 막대에 스티로폼 공을 꽂아 여기에 각 가지 과일들로 예쁘게 장식도 하고, 먹어가며 아이들과 부모들은 보기에도 즐겁고 먹기도 좋은 과일부케를 만들어냈다.

(8면에 계속)

제2회 사할린아리랑제

'아리랑의 문화적 실천'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17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제2회 사할린아리랑제가 펼쳐졌다. 이날 실내에는 보조의자를 세워야 할 정도로 만원을 이루었다. 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자는 따뜻한 내용의 시가 담긴 영상을 화면으로 펼쳐면서 제2회 사할린아리랑제가 개막되었다.

공연순서에 앞서 한국 문경시 고윤환 시장과 김지형 문경시의회의장의 인사말씀과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회장, 사할린주경제개발부 한 드미트리 아시아 1국장 등 인사가 있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사할린아리랑제에 문경시가 초청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저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회장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랑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리랑이 동포들을 너머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가슴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고 기원했다.

박순옥회장도 한 드미트리 국장은 아리랑 민요는 동포들이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평생 함께 하는 노래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본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공노원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부회장은 행사기획 의도를 밝혔다.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2015년 대한민국 국가주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 위상은, 그 가치는 전 인류와 함께하고, 그 전승은 한민족 구성원이 한다는 당위적 함의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사)한겨레아리랑연합회 회원들은 종목의 전형성과 각 지역 아리랑의 속성을 주목하여 전승함은 물론, 아리랑의 3대정신(저항/대동/상생정신)과 민족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문화적 실천을 하고 있다.

이의 한 일환으로 기획된 본 프로그램은 '아리랑, 해외동포사회와 함께하기'를 실천하는 행사로, 그 거점을 사할린동포사회로 확정하고 지난 해 제1회 사할린아리랑제로 출발했다. 사할린주/유지노사할린스크시/홋스크시/사할린한인협회의 도움과 한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리랑의 다양성과 그 멋과 맛'을 동포들과 함께 했다.'

금년 두 번째 사할린아리랑제는 '민중의 비애와 한(恨)의 수렴체(收斂體)'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는 미래의식의 추동체(推動體)'라는 아리랑의 핵심 정서를 주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날 관객들은 현재 한국에서 한민족 민요와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신 마이아(10세)가 부른 <아리랑>, <문경골 시어머니아리랑>(송옥자 외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6인), <치르치크 아리랑> (남은혜/공주아리랑보존회), <밀양아리랑> (유명옥 /서울아리랑보존회), <춘천의병아리랑> (기연옥/의병아리랑보존회, 외 7인) 등의 다양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고 <아리랑올림>춤 (김채원 -<아리&랑> 무용단 단장)을 비롯해 <아리랑>무용으로 무대를 수놓았다. 무대는 출연자들을 향한 관객들의 환호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사할린 러시아

민속음악단체인 <월라>카자크민속앙상블, 사할린러시아민속합창단, <라빈카>무용단, <아리랑>무용단(한인문화센터 소속)의 무대도 많은 환호를 받았다.

한국민속팀들과 함께 이번에 중국 조선동포들로 구성된 <윤은화밴드>가 출연하여 사할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밴드와 함께 무대에 오른 성악가 째인찌(김은희)는 영천아리랑과 장백산아리랑을 맛깔나게 불렀다. 중국밴드는 아리랑 메들리를 훌륭하게 연주하면서 (특히 양금연주) 관객들의 '앵콜'이 쏟아져 나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사회자의 설명을 들은 관객들은 이날 아리랑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다.

41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이번엔 6권으로 구성된 <서예로 답아낸 아리랑 일만수>란 책도 여러 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추진단장인 기미양 아리랑학회 이사는 "우리는 사할린아리랑제를 통해 아리랑의 고유 정서와 가치를 중국/러시아/일본, 그리고 북한동포와 함께하고, 나아가 전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 '아리랑의 문화적 실천'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18일에는 제2회 사할린아리랑은 홋스크에서 펼쳐졌다.

제2회 사할린아리랑제를 이곳 사할린에서 펼칠 수 있도록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 홋스크한인회(회장 박영순), 사할린주한인여성회(회장 김웨철)가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32호의 계속)

한일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사할린 한인의 고통의 근원에 일본 제국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과거사 청산 의지와 정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할린 한인 사안을 놓고 일본과 한국 양 정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 문제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반면, 일본 정부는 일정 시점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과거에 맺어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무엇이고, 미완의 과제는 무엇이며, 또 새로이 제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영주귀국 사업의 개선과 특별법 제정

그동안 한일 양국 적십자사에 의해 추진되어 온 영주귀국 사업이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영주귀국한 한인의 수는 모두 4천4백여 명에 이르며, 이를 영주귀국 사업의 성과로 보는 이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영주귀국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한인 귀환이 지연됨으로써 그 악영향이 이미 2, 3세에까지 미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한인 1세만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 정부는 그와 같은 일본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 나아가 고국에 들어온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들이 웅당 누려야 할 삶의 질 향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녀들을 사할린에 두고서라도 남은 생을

고향에서 살아보겠다며 영주귀국한 한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고립된 섬처럼 외로움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 할까.

따라서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심을 가져온 이들 사이에서는, 영주귀국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오히려 사할린 한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적확인 소송 승소 이후 2014년 9월 20일 사할린주 한인노인회>가 개최한 회의는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사할린 한인 2세의 영주귀국 보장과 이중국적 허용 등이었는데, 토론 과정에서 영주귀국 대상자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국적 회복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문제제기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감론을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새고려신문, 9월 26일 기사 참고)

한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영주귀국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드러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할 과제가 한국 정부에게 떠넘겨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당장 19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할린 특별법의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현재 한국에는 약 20여 개 지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 그들 대다수가 이미 고령이어서 해가 갈수록 일상적인 생활과 의료 부문 등에서 '돌봄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영주귀국한 동포들에게 일상적인 활동 지원 및 난방비 보조, 가족들 방문 지원을 약속한 사례는, 사할린 한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희망이 되고 있다. 이를 귀감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영주귀국한 동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본다.

사할린에 정착한 후대와의 연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사할린 한인 사회 안에도 세대가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역사에 대한 의식과 생활문화, 정서 등에서 드러나는 그들 내부의 분화와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1, 2세대의 영주귀국만 거론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앞으로는 사할린 현지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후대들, 젊은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KIN(지구촌동포연대)이 사할린 현지에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주장해온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았다. 역사문화센터의 건립이 현실화되면 사할린 현지에 대한 지원이나 연대활동이 전무한 상황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 다행히 KIN의 지속적인 외침은 성과를 거두어, 지난 2014년 10월 12일 사할린 현지 한인단체들(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사할린주 이산가족회)과 KIN을 비롯한 한국의 단체들(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할린 한국한인협회)이 사할린 한인 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계획대로 된다면 역사문화센터는 역사 전시 공간, 1세대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시설, 도서관과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선대가 경험한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속에서 미래 세대의 앞길을 밝혀준다는 의미가 있다.

나는 이런 활동이 한국과 사할린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할린 한인 사회 내부의 분화와 편차를 아우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부디 이 책이 그 절실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собрал на одной сцене корейских, рус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артистов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пятилетие включения народной песни "Ариран"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Именно этому событию был посвящен второй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Для участия в фестивале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большая группа гост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41 чел.), среди которых артисты, певцы, музыкан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а также мэр г. Мунген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Кенсан.

Концерты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их и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с успехом состоялись 17 сентября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18 сентября в район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г. Холмска. В концертах такж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ансамбль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иртуозное владение музык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и подарили любителям музыки наслаждение хорошей музыкой.

Песня Ариран явля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сней все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мире. Существует сотни вариантов этой песни, котору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а «Ариран» попытались собрать в одну книгу.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передали часть книг в дар сахалин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концер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оказали и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и г. Холм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к Ен Сун), а также Общ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им Вечери).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готовы наращивать инвестици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б этом шла речь на встрече главы области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ностранную делегацию возглавляли первый вице-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ан Тук Ку и мэр города Кванджу Чой Ок Тон.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укреп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Как отмети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орон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веренно развивается, но есть еще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ваша стран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ведущи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сновная доля 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работает» в так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нспорт, оптовая торговля.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я встреча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посетил павиль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обсуждал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ланы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вопросах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экономики.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руководители наших стран,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Мун Чжэ Ин четко обозначили курс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И мы будем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этого курса, - подчеркну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ервый вице-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ан Тук Ку, о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много слышал, но побыва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ему довелось впервые.

- Впечатления об острове у меня сложились самые лучшие. За три дня нахождения здесь я многое успел посмотреть. Честно, я не ожидал увидеть его таким красивым, с развит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Те стереотипы, которые преобладают в обще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на счет Сахалина оказались далеки от правды. Не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называют остров пустыней, без объектов спортивной, культурн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Я увидел его процветающим! - сказал Кан Тук Ку.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перспективы участия бизнесмен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х региона.

Иностран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рийти в такие сферы, как дорож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 гарантией до 50 лет, а также судостроение и судоремонт. В этих вопросах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лидер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До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волеется и в островн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Бизнес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готов строить объекты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й медицин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в регионе ассоциации по поддержк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По окончании встречи первый вице-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ан Тук Ку пригласил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к себе на Родину.

-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ложились прочные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и союзниче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ет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диаспора корейцев. Когда-то их привезли сюда насильно, и вместе с россиянами корейцы пережили все, что выпало на долю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Здесь выросли целые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для которых Россия в полном смысле слова, стала Родиной. Мощный потенциал памяти наших поколений ва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 благо, для развит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 сказал, подводя итоги встречи, Кан Тук Ку.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ива принимает гостей



ным молоком, медом, домашним вареньем и в стиле фьюжин с кимчи, не смогли оставить в стороне никого! Даже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им Джу Хван мастерски испек несколько блинов!

Теплый ветер дружбы, как морской ветерок с Анив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растрепавший ребячьи волосы и играющий с волнами, наполнил сердца наших госте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и желанием вернуться на Сахалин. Ну а мы - потомки тех, для кого Сахалин стал домом, сохраняя живую силу звуков Ариран

в крови, и, испытывая трепет в сердцах при первых аккордах российского гимна, будем ждать новых встреч с нашими новыми друзьями.

Ведь прощание - это всегда начало новых встреч!

Зам.председателя АО РООС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н Ён Му: СК создаё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из-за угрозы извне

Причина, по которой Пхеньян создаё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заключается в военной угроз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К Сон Ён Му, выступая 18 сен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офильного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Он заявил, что лишь 10% мотивации Севера в этом вопросе связаны со стремлением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своего режима. Остальные 90%,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обусловлены ощущением военной угрозы извне. Эта позиция отличается от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сделанного ранее в интервью CNN.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указывал, что СК создаё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свой режим.

Мун Чжэ Ин: Союз РК и США остаётся крепким

Позиции РК и США не могут сдвинуться абсолютно во всём, но двухсторонний союз сохраняет крепость.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18 сентября в Нью-Йорке на встрече с м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он привёл ситуацию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военным контингентом в РК. По его словам, базы США в РК отвечают интересам двух стран, но в вопросе расходов на их содержание мнение сторон может расходиться. То же самое касается и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что тем самы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диалогу по спорным вопросам. По словам Мун Чжэ Ина, разница в позициях по разным вопросам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здо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Президен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оюз очень крепок, и беспокоиться на этот счёт не нужно.

РК продолжит оказание Северу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Оказа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К должно продолжаться,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8 сентября на очередном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эк Тхэ Хё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зи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казан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детям и роженица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эк Тхэ Хён отметил, что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оказывается на Пхеньян в ответ на провокации, но это не должно касаться вопроса поддержки уязвимых слоё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Такая концепция сходит с позицией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21 сен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поддержк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на котором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 о выделении 8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гуманитарные программы Детского фонда ЮНИСЕФ и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ОН (WFP),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е к СК.

Создаётся орган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служащих

18 сентября комитет по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окуратуры и юридической сферы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рекомендовал создать орган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совершённы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и госслужащими. Численность штата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органа может достичь 122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50 прокуроров 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название органа - След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служащих, которое получит полномочия по проведению расследований и возбуждению судебных дел. Объектам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президен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главы судебных инстанций,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куроры и друг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госслужащие, их супруги и близк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легация РК отправилась в Оман и Саудовскую Аравию

19 сент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легация отправилась в Оман и Саудовскую Аравию. Поездка продлится до 23 сентября. Делегацию возглавил первый замминистр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Сон Бён Сок. В Омане делегация ознакомится с ход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в специ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Дукм, которое ведёт консорциу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данной з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мана продвигает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двигателя роста для 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Стороны намерены подписать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 вопрос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оздании новейш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истем и умных городов, в учреждени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опреснения морской воды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 ООН. В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делегация проведёт встреч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представив модел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ектах умных городов, нов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вязанных с крупным проектом Saudi Vision 2030. Последний направлен на расширение жилищ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ослабления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кспорта нефти. Кроме т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намерена обсудить план выхода РК на ближневосточный рынок опреснения морской воды. (RK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1937 год: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15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отдел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прошё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1937 год: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посвященный 80-летию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В симпозиу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



чел.: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научные сотруд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Владивосток, Москва, Краснодар, Оренбург, Ханты-Мансийск, Новосибир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зарубежные (Австрия, Узбекистан, Киргизия, Казахст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итай, СШ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центр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России, стран СНГ, Китая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импозиума выступи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г. Моск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КА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г. Уссурийск),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КФ)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Фонд помощи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имени Чве Джэ Хёна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нгук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ы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до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нбук (Чондж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Цели симпозиума – выявлен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и специфики развития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СНГ, укреплени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центрами корееведения,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ддержании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азвитие политики гармонизации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обществе, в том числе воспитание культуры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Открыл симпозиум Виктор Лаврентьевич Ларин, член-корреспондент РАН,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В своем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актуальность форума обусловлена не только осмыслением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прошлого, но и возможностью обсудить имеющийся потенциал в контекст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 котором говори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третьем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частников симпозиума приветствовал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 Долгих, академик,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традиций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русскими, украинцами, татарами и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Цо,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ООК, Москва), член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заострил внимание на рол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фактора в развитии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связанных с принудительным переселением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но и многих народов СССР, проживавших на пригранич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Невзгоды, укрепившие силу духа «корё сарам», кропотливый труд, тяга к образованию позволили русскоязычным корейцам не только достойно перенести тяжелые испытания, но и добиться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 отметил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Со словами приветствия к участник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импозиума обратились Ли Сок Пэ,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Чой Дон Чжун, вице-президент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им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ья, Юн Сан Вон,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культуры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до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нбук. Все выступающие подчеркивали важность форума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усилий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в осмыслении прошлого, настоящего и будущего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СНГ.

Пленарные и секционные доклады содержали детальный анализ событий августа 1937 г., когда более 172 тыс.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ены с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Докладчики уделили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историографии вопроса, рассмотрели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обсудил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 специфику менталитет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ающие отметили, что за полтора века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значительно интегрировались в окружающую их социа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среду, совет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социум. По мн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опыт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странах СНГ особо востребован в контексте модели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полиэтническом обществе, способност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различ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На форуме работала молодежная секция и круглый стол. Студенты и магистранты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Уссурийска, Москвы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лод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Круглый стол объединил тех, кого интересовали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корё-сарам)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Завершился симпозиум презентацией книги «Миграция корейцев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821–1918).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история. – М., 2017. – 726 с. Составитель – Ж.Г. Сон, к.и.н., доцент НИУ ВШЭ, Москва. В книге опубликованы документы, раскрывающие особенности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корейцам, роль и место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и рус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аботе симпозиум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сторики, этнологи, философы, культурологи, политологи, социолог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процессе работы научного форума была подчеркнут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широких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ых дискуссий по акту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ого знания. Доклады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борнике материалов симпозиума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Пресс-служба ДВО РАН
Фото О. Васик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ют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лучшие позиции в стране по отношению денежных доходов к стоимости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набора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занимают Ненецкий и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е округа. Такие выводы сделали эксперты агентства «РИА Рейтинг». Они провели анали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17 года. Его результаты приведены в аналитическом бюллетен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гионов РФ - Итоги января-июня 2017 года».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ыросло на два процента, отметили авторы бюллетеня. Пози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общую динамику оказал рост, в частности, в сфере добычи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увеличение на 3,1 процента), в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отраслях (1,2 процента).

Стоимость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набор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увеличилась на 6,2 процента. Она составила 14500 рублей. Лидерами по отношению денежных доходов к стоимости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набора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стали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метили авторы рейтинга.

-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факторов достигнут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отношения доходов и цен на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является политик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 Оно,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нимает меры, чтобы не допускать существ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затра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а оплату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электро- и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И,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тимулирует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для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Такие меры позволяют сдерживать рост цен на основны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По данным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1 июля 2017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няя цена одного килограмма мяса птицы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составила 137 рублей. Свиная фермерского разуба, произведенная местным хозяйством, стоит в розничной сети 250 рублей. Это самые низкие цены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орого обходится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молоко питьевое. Продукция местных хозяйств стоит в среднем 61,23 рубля за литр.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и Приморье молоко дорож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67,69 и 84,77 рубля. Овощи, выращенные на полях островных хозяйств, являются одними из самых дешевых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ри этом цены на них заметно снизились. Например, в 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няя цена картофеля в сети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оставила 29,7 рубля за килограмм. Год назад она была гораздо выше - 39 рублей. Подешевела за этот период капуста (21,2 рубля против 22,4 рубля), свекла (31,7 рубля и 34,2 рубля), огурцы салатные (42,5 рубля против 47,5 рубля).

«РИА Рейтинг» - универсальное рейтинговое агентство медиагруппы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Оно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оценк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регионов РФ,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компаний, отраслей, стран.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 создание рейтингов регионов, бан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траховых компаний, ценных бумаг, друг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комплекс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финансовом, корпоративном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ах.

Два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выиграли грант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 развит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и сегодня в ходе семинара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его прибывш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Иннокентий Деметьев. Собравшимся он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как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подготовить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данного вида поддержки.

Подобные конкурсы для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аствующих в развитии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России, проводятся с 2006 года. Выделение гран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о по 12 направлениям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о -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и защита граждан, охрана их здоровья;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начинаний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свещения,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защита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защита животных;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поддержк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некоммерче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предложили участвовать сразу в двух процедурах отбора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На первый конкурс, итоги которого уже подведе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а 15 заявок. Две из них победили. Это инициативы клуба «Бумеранг»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дная земля».

«Бумеранг» выделяют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о эколог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Друзья океана». Общественники намерены обучить сахалинцев приемам первой помощи морским животным,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ранения или ослаб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будет разработан специальный тематический сайт.

Еще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ит «Родная земля» на проект «Укрепрайон Ноглики». Он связан с сохранением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 созданной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линии обороны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Для дета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объек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дение экспедиции. Все найденные на месте находки будут изучены, а впоследствии переданы в музей.

-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отмечаем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т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а.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после семинара эта тенденция только укрепитсся. Самое важное - больше будет победителей.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для этого - подготовка качественно проработанных и логически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ых заявок с реалистичным бюджетом, - отметил Иннокентий Деметьев. - Для нас важны все проекты - уже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о них заявляют общественники - люди с ак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ей. Таким надо помогать, - добавил он.

- Наш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на очередном этапе -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заявок, расширить палитру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ются некоммерчески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с целью улучшить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 сказа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И.

С 16 августа по 29 сентября Фон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принимает от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уже во втором конкурсе этого года. Общая сумма поддержки инициатив составит 4,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оцедуре отбора проектов размещен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 адресу: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Очередная медик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Рубежи России» завершилась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За 8 дней зафиксировано 1,7 тыс. обращений к специалистам из клиник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Хабаровска. Всего в составе медицинского десанта 14 врачей, на Итурупе экспедиция побывала в 18 раз.

-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над повы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едавно запустили проект «Выезд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ы помогаете нам, 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отзывов мы слышим от людей, живущих на Итурупе. Надеемся и на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приветствовал врачей,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Алексей Пак.

Медик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делегация «Рубежи России» организована фондом Андрея Первозванного и Цент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авы. На Итуруп её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ыезжают два раза в год. Основной приём ведется в мест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Специалисты также выезжают в село «Горячие ключи». В этот раз на остров приех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для работы со взрослым населением, но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ни принимали и детей - осмотрено 63 ребенка.

- Экспедиция существует более десяти лет, и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положительную динамику в работе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Ес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медработников в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методов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 отмет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экспедиции Наталья Шевченко.

- Впервые выявлено 279 заболеваний, 5 пациентов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о, 4 человек направили на дальнейшее обследование, с подозрением на наличие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 дополн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На встрече врачи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едложениях по оснащению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базы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шла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более соврем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для ультразвук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нистр отметил, что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больницы обсудит этот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больницы.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горнолыжных курорт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горнолыжном курорте "Вивалди Парк" с 15 по 18 сентября прошел III-й саммит горнолыжных курорто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Участие приняли горнолыжные курорты: "Русуцу" Япония, "Вивалди Парк" Южная Корея, "Ванлунь" КНР, 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урортов выступили с презентациями, поделились итогами работы зимнего сезона 2016-2017 гг. и планами развития курортов на новый сезон 2017-2018 гг.

По итогам работы саммит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заимном активном продвижении курортов-партнеров в своих странах и регионах, об участии партнеров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сторон в значимых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одним из таких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нет Восточ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котором партнеры в павиль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тенд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езентуют свои курорты и систему "Единого ски-пасса" курортов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что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более активным обмен туристами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алгоритмы обучения и стажировки сотруд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по обмену опыт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встречи также была пересмотрена система "Единого ски-пасса" курортов, позволяющая в течение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посещать курорты при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ях.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отокола партнерами на сайтах курортов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условия действия "единого ски-пасса". Местом следующего саммита станет курорт "Ванлунь" КНР.

Сахалин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акции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Накануне Дня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3 ноября,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страны пройдет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акция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ет ее участницей во второй раз.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16 году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написали почти 90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решились около 200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 В этом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пять площадок.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кто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от 15 лет и старше.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за определенное время выполнить 30 тестовых заданий (20-федеральных и 10-регион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е вопросы для диктанта будут разработаны СахГУ, - отмети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ветлана Васильева.

«Тема культур и традиций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неисчерпаема и не может уместиться в 30 вопросах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Но наша задач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после этой акции у жителей России появилось желание изучать свои корни, традиции своих предков, узнавать больше о тех, кто живет рядом. Потому что знание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для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согласия между людьм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 отмечает Игорь Барин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Ф (цитата с официального сайта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http://miretno.ru>).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являются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Ф при поддержке Института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я антропологов и этнологов России» и др.

Итоги акции подведут ко Дню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и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оекта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http://miretno.ru>).

Курс будущего врача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ся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базовой кафедре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 занятиям приступили студенты 6 курса.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фессии сейчас они познают в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 Базовая кафедра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Сахалине работает уже второй год. Сейчас на ней занимаются 8 студентов шестого курса. В основном, это сахалинцы, еще двое ребят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иморья. Более 4 лет они училис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 пятый курс заканчивали уже здесь, - напомнила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Янина Гущина. - Впоследствии все студенты планируют работать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в разных больницах и поликлиниках. Тема первого цикла в этом семестре «Профилактика не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туденты курируют больных, интересуются жалобами. Параллельно с лечащими врачами ставят диагноз, дают рекомендации. За процессом следит профессор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 В сентяб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ни уже будут сидеть на приеме. И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для них - научить людей профилактике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Этому сейчас они сами учатся, работать в прямом контакте с пациентами. Потом мы разбираем, что они сделали правильно, обращаем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блемные моменты, - отметил доктор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Юрий Кулаков. - Десять дней мы будем разбирать эти вопросы, потом придет специалист п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й терапи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6 курса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участковыми терапевтами. И некоторые студенты уже сделали выбор в пользу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Другие собираются продолжить обучение,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узкую специализацию.

- Надеюсь поступить в ординатуру, собираюсь стать инфекционистом. А потом, конечно, планирую вернуться на Сахалин. Здесь мы уже присмотрелись к больницам и поликлиникам, выбрали, где будем работать, - поделилась планами студентка 6 курса Ангелина Сулова.

- Решила стать участковым терапевтом, работать собираюсь в Холмске, - рассказала о своем выборе студентка Екатерина Паздникова. - На кафедр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заниматься, здесь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более глубокие.

Базовая кафедра вуза была создана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уководством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5회 재외동포 사진전 개막, 80여명의 고려인, 아이들과 국내 주요 인사가 함께 한 '재외동포 사진전'

9월 19일 오전 11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주최하는 '제5회 재외동포 사진전' 개막식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세계 각국 재외동포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계기 고려인 동포들의 삶의 발자취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특별전이 함께 전시됐으며,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녕만 심사위원장, 정성태 작가 등 주요 인사와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80여명 등 참석해 개막을 함께 축하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사진 캡션

1. 개회사를 하고 있는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 국내 거주 고려인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
3. 개회에 앞서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는 국내 거주 고려인과 아이들
4. 개막 기념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사진 왼쪽부터 김울리아나 국내 거주 고려인, 이천영 광주 고려인 마을 대표,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김녕만 심사위원장,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성태 작가,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김병학 자문위원, 김엘레나 국내 거주 고려인)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주철기 이사장)은 오는 26일 (화)부터 29일(금)까지 나흘간 서울 잠실 롯데 호텔에서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모국에 모여 동포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 한인회장 간 교류를 통해 전 세계 한인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약 80개국의 한인회장 및 한인회 연합회 임원 4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포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회 공동의장은 오공태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이 맡는다.

올해는 각국 한인회의 세대교체를 통해 새롭게 선발된 차세대 한인회장들이 새로운 현안과 역할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 세계적 이슈인 대북제재와 관련해 각국의 한인회의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첫 날인 26일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구심점인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주취 환영만찬이 진행된다.

27일 오전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고,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2017 세계

한인회장대회' 개최식과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각 기관 관계자들 한인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대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명한다.

대회 셋째 날에는 지역별 현안 토론, 주요 정당 정책포럼,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각국 한인 사회의 현안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각 지역별로 논의된 현안을 발표하고, 각국 한인회장과 한인사회의 뜻을 모은 결의문을 낭독한다. 이어 진행되는 한인회 운영사례 시상식과 장학금 수여식을 끝으로 대회의 폐막을 알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은 "올해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만큼 재외동포의 역사와 가치, 역할을 조명하고, 세계 한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9월 19일(화)시작한 '제5회 재외동포 사진전'이 8일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다. 재외동포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과 함께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및 정성태 작가 특별전 등 총 150여점이 전시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4

시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호의 계속)

(4) -에 비하면 "по сравнению с ..."

Примеры:

작년에 비하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70% 정도로 늘어났다.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прос на нашу продукцию вырос на 70%.

그 여자가 나이에 비하면 젊어 보인다.

→ Она выглядит моложе своих лет.

옛날에 비하면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

→ Жизненный уровень сильно улучш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5) -(으)르 것도 안/못 되다/없다 "даже нельзя назвать ..."

Примеры:

겨우 이 정도로는 도움이랄 것도 못 돼요.

→ Эта даже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помощью.

영화의 줄거리가 너무 밋밋하여 갈등이랄 것도 없었다.

→ Сюжет фильма был такой простой и гладкий, что в нем даже конфликтом назвать нечего.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라 비밀이랄 것도 못 된다.

→ Я даже это секретом назвать не могу, это уже все знают.

쓰기 연습 Письменные упражнения

1. 보기처럼 '-(기)에 따라(서)'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아주머니, 배 한 상자에 얼마씩 해요?

 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걸 4만원이고, 저건 5만원이에요.

(1) 가: 이리나 씨가 오늘은 아주 달라 보입니다.

 나: 여자는 무슨 옷을 _____

(2) 가: 이번 한국어 시험 성적이 너무 좋아요.

 나: _____

(3) 가: 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나: _____

(4) 가: 이 제품은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나: _____

(5) 가: 외국에 가려면 꼭 초청장이 필요해요?

 나: _____

2. 보기처럼 '-에 대해서, -에 대하여'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1) 가: 핸드폰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핸드폰이 좋습니까?

 나: _____

(2) 가: 어제 _____ 강연이 있었는데 좋았어요?

 나: 아니요. 수업이 있어서 못 갔어요.

(3) 가: 이리나 씨, 왜 한국에 가려고 해요?

 나: _____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우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해요.

(4) 가: 왜 그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세요?

 나: _____

(5) 가: 어제 그 분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눴어요?

 나: _____

3. 보기처럼 '-에 비하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일기예보에 따르면(의하면) 오늘 오후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온다고 한다.

(1) _____ 이곳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답니다.

(2) _____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열 명이나 된다고 한다.

(3) _____ 탑승이 30분 정도 늦어질 것이다.

(4) _____ 내년 말쯤에나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한다.

(5) _____ 교통체증이 설 연휴가 시작된 날에 가장 심하답니다.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만남은 특수아동들의 사회성을 돕고 아이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 속에서 교제와 몸가짐의 숙련성을 익히도록 돕는다고 한다.

<러시아 여성 연맹>사할린지부 부회장이며 <열린 마음>클럽 회장인 엘레나 스톨라로와에 따르면 <과일부케> 활동교실 개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의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말한다. 올해 <열린 마음>클럽은 <선을 지우며>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우리와 우리 도시>지방자치체 콩쿠르에 참가하여 15만루블리의 장려금을 받았다. 앞서 이 행사의 일환으로 장애아들은 반죽으로 만든 동상에 색칠하고, 춤추며, 그림으로 접시를 장식하기도 했다.

12월에 <열린 마음>클럽은 장애아들을 위한 신년 연극공연을 열 계획이라고 시행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Особенные дет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брали фруктовые букет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ля ребят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их родителей проше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озданию композиций из фруктов.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при участии клуба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 стали 40 детей из 35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еред начал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 собравшиеся смогли пообщаться с клоунами и прогуляться по открытой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Генерал", руководство которого предоставило площадку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Цель мастер-класса —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ребят. Из оберточной бумаги, длинных шпажек, мягкой основы и разнообразных фруктов дети и их родители собрали по букету, который радует глаз и при этом съедобен.

Специалист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помогают социализации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развивают их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дают навыки общения и поведения в обществе.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женщин России", руководитель клуба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Елена Столярова, провести мастер-класс "Фруктовый букет"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м году клуб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Мы и наш город" с проектом "Стирая грани" и получил грант в 150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нее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ребята также раскрашивали фигуры из соленого теста, танцевали, расписывали тарелки.

В декабре клуб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планирует устроить новогодний спектакль-концерт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сahal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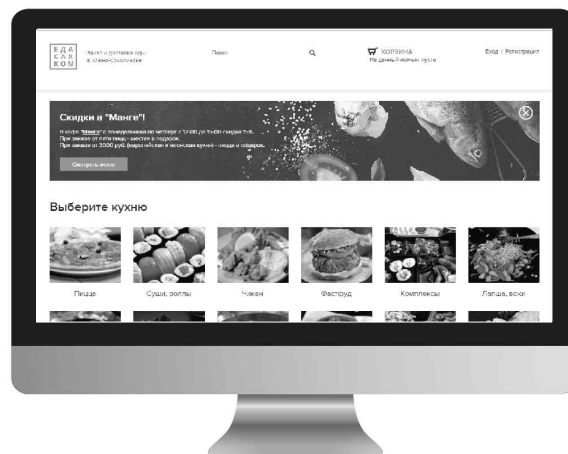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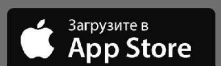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